

Market Index / 30일

코스피지수 ▲ 3070.00 +33.96	코스닥지수 ▲ 958.06 +3.96	유가(WTI, 달러) ▲ 61.56 +0.59	환율(원)	1USD 1154.35 100¥ 1048.12	1114.65 1012.08	1EUR 1359.61 1CNY 181.24	1306.07 163.98
---------------------------	-------------------------	------------------------------	-------	------------------------------	--------------------	-----------------------------	-------------------

줄지 않는 미분양에 주택건설시장 침체

2월 기준 1221호 중 84.7%는 준공후 미분양이 차지
미분양 해소 안되며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올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건설 실적도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1221호로 집계됐다. 전달(1250호) 대비 2.3%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폭이 미미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3월(1339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미분양 해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받겠다는 이가 없어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034호로 도내 전체 미분양의 84.7%를 차지했다. 올 1월 1063호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000호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던 데서 한 달동안 2.7%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미분양이 꾸준히 줄었다. 2월말 기준 1만5786호로 전달 대비 7.8%(1344호) 감소하며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집계될만큼 감소세가 확연하다. 도내 미분양이 1200호 안팎을 유지하면서 주택건설 실적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333호로 전년동기

(676호) 대비 50.7% 감소했다. 5년 평균(1486호)에 비하면 감소폭은 더 커져 77.6% 줄었다. 2월까지 주택착공은 566호로 전년동기(855호), 5년 평균(1597호)에 비해 각각 33.8%, 64.6% 줄었다. 또 주택분양실적은 전년 동기(614호)와 5년 평균(314호)에 비해 각각 85.0%, 70.7% 감소한 92호로 집계됐다. 주택 준공은 573호로 전년 동기(783호)보다 26.8%, 5년 평균(1876호)보다 69.5% 줄었다. 문미숙기자 ms@halla.com

“신재생에너지 설비 과다로 올해 출력제한 200회 예상”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력공급 과다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송출하지 못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횟수가 올해 200회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지역경제보고서’(3월호)를 통해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한 예상 횟수가 올해 200회, 내년에는 240회로 예상된다. 출력 제한은 전력공급이 과다할 경우 전력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서 발전설비 출력을 낮출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77회 발생했다. 2015년 3회, 2016회 6회에 그쳤던 것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9년 기준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은 617.2MW다. 2015년 327.8MW에서 2016년 394.8MW, 2017년 421.4MW, 2018년 477.7MW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1.4% 증가했다. 풍력발전 출력제한 횟수가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현재 육지에서 제주로 전력을 보내는 한방항 공급계통인 해저케이블 제1연계선(제주-해남)과 제2연계선(제주-진도)에 차세대 전력전송 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역송전(제주→육지) 기능을 구축하고, 2022년 말까지 HVDC 추가 설치 방안도 검토중이다. 문미숙기자



“사랑도 함께 담았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산물 꾸러미 나눔운동 발대식에서 이성의 농협중앙회장(왼쪽)과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꾸러미 상자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사인간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회사 대출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현재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

다. 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고금리 20% 적용은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던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던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감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와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대출 대한상품을 한시공급하고,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과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도 출시한다.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문미숙기자 ms@halla.com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3월 29일~4월 4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사명	대표	창립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고신관	1991년 4월 1일	
(주)금강전기조명	고혁남	1996년 4월 3일	
제민신용협동조합 도남지점	현인석	2004년 4월 4일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차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23)

“제주의 저출산 관련 인식개선 홍보”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4월 1일 창립 60주년을 맞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지회장 고신관·사진)는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출발한 협회는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산하 13개 지회와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고신관 지회장은 “제주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인식개선과 홍보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742-0456.



“이익 사회 환원과 신뢰받는 기업될 것”

▶(주)금강전기조명=4월 3일 창립 25주년을 맞는 (주)금강전기조명(대표 고혁남·사진)은 ‘제주 사회에 한줄기 빛이 되자’를 슬로건을 내걸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기 선두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국을 벗어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코롬(비디오폰/조명/도어락), 삼성(비디오폰/도어락), 솔라루체 LED 등 전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고혁남 대표는 “기업 이익을 사회로 환원해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702-2051.



“도민과 상생하는 착한금융 실천”

▶제민신용협동조합 도남지점=오는 4월 4일 개점 17주년을 맞는 제민신용협동조합 도남지점(지점장 현인석·사진)은 지난해 11월 도내신협 중 최초로 자산 7000억원을 달성하고 총 자산 718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도남지점은 인근 주민센터, 행복나눔센터 등과 교류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통한 포용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현인석 지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흑자경영이 가능했다. 지역사회와 같이 숨쉬는 착한 금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753-0621. 이태윤기자



‘J-스타트업’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기반 관광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시장 대처와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도내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총 상금은 1억원(1위 최대 5000만원)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주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본격적인 사업 런칭 시점부터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064-740-6065. 이태윤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목이 특가할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메인※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검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메인※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시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봉, 금금
당유자, 아미나스,미나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청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중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제주도정소식

4월 3일, 10시부터 1분간 추모목념 사이렌이 도전역에 울립니다.
도민과 유족께서는 4·3평화공원 방문을 자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4·3영령들을 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중 정보화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1. 3.30.(화)~4.6.(화)
○ 교육과정 : ITQ 엑셀 등 2개 과정
○ 교육방법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교육장소 : 교육생 - 자택
○ 교육인원 : 과정당 15명 내외
○ 교육비 : 무료(교재: 개별 구입)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jeu.go.kr/jeuedu/index.htm, 로그인후 수강 신청)
○ 문의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064)710-7433
○ 4월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요일	시간	비고
ITQ 엑셀	4.12.(월)~4.30.(금)	월-금	10:00~12:00	자격증 대비
ITQ 파워포인트	4.1.(월)~4.30.(금)	화, 목	14:00~16:00	